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4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9일과 3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소개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제안 사업 발굴과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안내해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김제시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계층 교육과정을 통해 김제의 미래인 청년들의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유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완주군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9일 완주군은 사업대상은 완주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이 중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학생이 해당되며,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교 연 40만원 △중학교 연 50만원 △고등학교 연 60만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업 및 진로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wanju.family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완주군가족센터전화(063-261-1033, 231-1037)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통합문제는 군민 뜻에 따라야”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전주 통합 입장 밝혀... “완주시 승격 추진할 것”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전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도지사 방문시 완주군민과의 대화에서 완주군민의 뜻을 충분히 피력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회가 닿지 않았다”며 “도지사 방문을 계기로 완주군의 현안을 포함해 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을 방문해 500여 완주군민과 함께 도정을 공유하며 균형과 도정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자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수소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 중심도시와 호남의 물류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전북특별자치도 4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완주군은 물류단지 10만 평 완공에 이어 36만 평의 테크노밸리2산단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구는 2년 동안 매일 322명씩 7,784명이 증가했고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10만 3,500



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인구증가율을 보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완주군의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찬반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완주군민 갈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군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 군수는 “발전위원회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 사항 검증과 평가, 타 지자체 통합사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구는 2년 동안 매일 322명씩 7,784명이 증가했고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10만 3,500

난 2013년 과정처럼 갈등과 상처만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완주군민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완주시 승격을 추진할 것이다”고 힘써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보다도 전주, 익산 등 인접 시군과의 상생사업을 통한 경제적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해 주민 투표 없이 자연스럽게 통합문제가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군수는 “통합은 전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에, 선택에 달려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기속사 근로자 임차비·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내달 5일까지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기속사 근로자 임차비 및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며, 오는 8월 5일까지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중소기업 기속사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제시 내 공장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기업 중 주변의 아파트·오

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속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1실 1인 20만원, 1실 2인 이상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하여 용자금 이차보전해주는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본사와 공장을 관내에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용자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자 한도

액은 5억원이다. 용자기간은 업체당 2년이므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에는 4%, 여성·청년기업, 김제시 표창을 수여받은 기업에는 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전북은행 김제지점, 국민은행 김제지점, IBK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하나은행 전주금융센터, 우리은행 김제지점,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촌진흥청, 완주군 수해 복구 ‘앞장’

1200여명 직원 일주일 이상 지원

농촌진흥청이 수해를 입은 완주군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속·산하기관 등 유관기관 직원들

은 피해농가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의 활동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으며, 전북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업생명자원부,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인적자원개발센터 등 6개의 관계부처 1200여 명의 농업전문가들이 대거

투입해 힘을 보탤다.

최정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피해 농가들이 빠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에 도움을 준 농촌진흥청 소속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부시장, 새만금 내부개발 현장 방문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신상만 현장 찾아 사업 추진상황 점검

김희욱 김제시 부시장이 29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현장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농생명용지 4공구를 시작으로 국립수목원, 국립해양생물과학관 조성, 심포 마리나 항만,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동, 새만금 33센터, 수변도시, 신상만 등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6월 매립을 완료하고 1단계 상부 조성공사가 한창인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성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상만 현장에서는 신규 무역항 지정과 배후단지 조기 개발 의견도 피력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



김희욱 부시장

계획(MP) 재수립 추진’에 따라 김제 미래성장 견인을 위해 발굴한 사업에 대해, 새만금전략과 장으로부터 대상 위치와 주요내용을 들었고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논리 개발로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식량컴비너트 조성, 바이오단지 조성, 산업·연구용지 확대 추진 등 새만금 지역 발전은 물론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으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고의 숙련 기술인을 찾습니다”

‘2024 김제시 명장’ 후보 접수... 내달 26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2024 김제시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29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4 김제시 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명장’은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선정해 지역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식품가공과 제빵, 미용 등 38개분야 92개 직종에서 1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공공일 기준 5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소세화 사업장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기술자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들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면접, 3차 명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김제시 명장 증서와 기술장려금(3백만원)을 수여한다.

‘2024년 김제시 명장’ 신청은 읍면동장, 각 업종별 협회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8월 5일부터 26일까지시청 경제진흥과(☎063-540-3122)에 방문·우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명장 선정이 지역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 기술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화산농협, 조합원 대상 무료 한방봉사

완주군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은 지난 26~28일 3일간 화산농협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의료봉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지도교수 이원용) 상산문학회 13명의 한의대생과 2명의 한의사가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다. 의료진은 디스크, 관절염, 소화불량 등을 앓고 있는 조합원에게 침 및 뜸을 비롯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약 100여명

의 고통 조합원이 의료봉사 혜택을 받았다.

화산농협 김종채 조합장은 “도시에 비해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촌의 고통 조합원들에게 이번 의료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러한 의료봉사활동을 매년 추진하여 의료혜택에 소외된 농촌과 그리고 고통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